

**지역성을 반영한 공동주거 평면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 POE를 이용한 거주자 평가를 기초로 -

A Study on the Design of Apartment Housing Units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오찬옥* / Oh, Chan-Ohk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the design alternatives of housing units which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POE. The POE of the New Apartment Complex in Gimhae was carried out an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POE, the design alternatives of housing units were developed. The subjects were 372 housewives who live in the apartment houses sized 60m² to 85m² in Gimhae. They answered about the living characteristics related to hous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housing unit plans, and the needs for housing unit plan. The major problems in current housing unit were the lack of storage space and the small size of living room and children's bedrooms. Many residents wanted to live in the housing unit which have three bedrooms and some of them wanted two bedrooms. Also, they wanted to enlarge living room and instead of that, to reduce master bedroom. In addition to these, the residents had diverse housing need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housing alternatives which are flexible and optionable were suggested.

키워드 : 아파트 대안, 평면디자인 대안, 지역성, 거주후평가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택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대안인 공동주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공급되어 왔다. 즉 도시 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동일한 평면구성을 가진 고층아파트가 앞을 다투어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평면구성은 거주자의 생활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생활상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김상희·안주영, 2002 ; 심우갑 외, 2001 ; 조성희·박수빈, 2000 ; 김수암·박용환, 1992).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지역특성에 대한 배려 없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이제까지의 공동주거 디자인은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지방의 경우 이를 그대로 옮겨다 놓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거를 계획하고 디자인함에 있어 단지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던 단계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형태의 공동주거를 공급하는 것은 질적인 측면,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는 많이 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주자의 생활특성과 요구에 맞지 않는 공동주거 디자인은 결국 거주자 생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성이란 한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자연, 문화 등의 지역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계획시 이러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기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파트 평면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 거주자의 주거행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연구대상인 김해시 내외동 신도시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생활특성과 주거만족도 및 주거요구를 지역성이라고 보고 접근하였다.

거주후 평가(POE ; Post-Occupancy Evaluation)는 건물이 디자인되고 시공되어 사용자가 사용하기 시작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건물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건물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건물 디자인의 장점과 단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다음 건물을 디자인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피드백 과정이다. 이 거주후 평가는 특히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나 병원, 기숙사 등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차후의 디자인을 위한 기초가 된다.

*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2-G00011)

경남 김해지역은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도시중의 하나로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의 공급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적합한 공동주거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김해지역을 대상으로 POE 기법을 활용하여 현재의 아파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거주자의 생활특성과 주거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성이 반영된 공동주거의 평면디자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해지역의 지역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김해지역에서 최근에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자의 생활특성을 조사한다.

셋째, 아파트의 평면구성에 대한 거주후 평가를 실시하여 평면디자인에 대한 거주자 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성이 반영된 공동주거 평면디자인의 대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 김해시 내·외동 신도시지구에 위치한 총 18개 아파트 단지 15,070세대의 77%를 차지하는 20평형대와 3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371명이었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보완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내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2인과 대학생 6인이 2002년 9월과 10월중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통반장의 도움을 받아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배부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거주 가구의 생활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주부와 가장의 특성(연령, 학력, 직업, 가장의 직장위치), 가족 특성(가족수, 가족구성, 월평균 가계수입), 주거 특성(주거소유상태, 거주기간, 이전 주거의 위치), 주공간 사용특성(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컴퓨터 보유 대수와 위치, 침대를 사용하는 방과 방이 좁아 침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방)을 조사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만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 각 실 배치, LDK 구성, 평수 대비 방수, 각 실 크기, 발코니 크기, 수납공간 크기, 주방 싱크대의 8가지 특성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거주자의 주거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의 개수, 각 실의 크기, 거실과 현관의 구성방식, 거실과 주방·식당의 구성방식, 안방의 드레스룸 설치, 욕실구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3. 조사결과

3.1.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경남 김해지역은 동으로는 부산광역시와 접해 있고 북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와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창원시와 접하고 있다. 남해 바다의 해양성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 전국에서 가장 온화한 편으로 인간이 활동하기에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5도 내외이고 평균 강수량은 1,200mm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1,274mm와 비슷하다(<http://gimhae.go.kr>).

김해시 전체의 세대수는 2002년 10월 31일 현재 121,587세대이며 이중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내외동에는 22%인 26,789세대가 살고 있다. 인구수는 김해시 전체는 384,015명이고 내외동은 92,000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내외동 신도시 지구은 아파트 15,000여 세대와 주택지 3,000여 필지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부산과 동·서부 경남을 연결하는 교통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이용에 편리하며, 최근 몇 년간 부산과 마산·창원지역에서 주민이 대거 이주하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이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병원, 학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곳곳에 근린시설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녹지를 가까이 할 수 있다. 주요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되어 있고 높지 않은 경운산, 임호산, 함박산 등 잘 다듬어진 산책로는 가벼운 운동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연지공원, 김해복지센터, 김해문화원, 김해시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어 김해시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3.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조사대상 지역의 가구특성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 주부의 특성, 가장의 특성, 그리고 가족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특성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대도시의 신시가지 지역인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¹⁾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주부의 특성을 보면<표 1>, 20평형대와 3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의 연령은 30대가 65.2%와 61.3%이고 40대가 21.6%와 33.6%로 30평형대의 경우가 20평형대보다 30대는 적고 40대는 많았다. 주부의 학력은 20평형대와 30평형대 각각 고졸 이하가 73.3%와 45.3%인 반면, 대졸 이상은 26.7%와 56.5%로 30평형대의 경우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가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20평형대와 30평형대 거주 주부 모두

1) 오찬욱 외, 아파트 실내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 p.128

전업주부인 경우가 86.0%와 84.7%로 대부분이었다.

이를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주부의 연령은 20평형대의 경우 30대 이하가 64.2%, 40대가 30.2%로 본 조사대상지역인 김해지역의 경우와 유사하였으나, 30평형대의 경우는 30대 이하 40.8%, 40대 48.2%로 김해지역이 30대는 많고 40대는 적어 더 젊은 경향을 보였다. 주부의 학력은 20평형대의 경우 고졸이하가 60.0%, 30평형대의 경우는 44.7%로 두 지역이 비슷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주부의 특성 N=371

주부특성	구분	20평형대 f (%)	30평형대 f (%)	전체 f (%)
연령	25-29 세	23 (10.1)	2 (1.5)	25 (6.9)
	30-39 세	148 (65.2)	84 (61.3)	232 (63.7)
	40-49 세	49 (21.6)	46 (33.6)	95 (26.1)
	50 세 이상	7 (3.1)	5 (3.6)	12 (3.3)
	계	227 (100.0)	137 (100.0)	364 (100.0)
	평균	36.3 세	38.0 세	37.0 세
학력	고졸이하	162 (73.3)	57 (43.5)	219 (62.2)
	대졸이상	59 (26.7)	74 (56.5)	133 (37.8)
	계	221 (100.0)	131 (100.0)	352 (100.0)
직업	직장 없음	185 (86.0)	105 (84.7)	290 (85.5)
	직장 있음	30 (14.0)	19 (15.3)	49 (14.5)
	계	215 (100.0)	124 (100.0)	339 (100.0)

조사대상 가구 가장의 연령은 두 평형대 모두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고 20평형대의 경우는 30대가 56.2%로 많은 반면 30평형대의 경우는 40대가 52.6%로 많았다<표 2>. 학력은 20평형대 거주 가장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이 50%씩으로 같았으나, 30평형대 거주 가장은 대졸이상이 76.9%로 많았다. 가장의 직업은 20평형대와 30평형대 거주 가장 모두 일반사무직이 55.6%와 66.2%로 많았고 판매서비스직도 21.0%와 17.7%로 어느 정도 되었다. 가장의 직장 소재지는 김해인 경우가 많아 20평형대와 30평형대 거주자의 경우 68.1%와 76.1%가 되었으나, 부산인 경우는 21.5%와 13.6%, 마산과 창원인 경우는 6.6%와 7.7%로 김해시가 부산지역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일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해운대의 경우 20평형대 거주 가장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41.5%, 40대가 47.2%로 김해지역이 30대는 많고 40대는 적었으며, 30평형대의 경우는 30대 이하가 27.1%, 40대가 56.1%로 두 지역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장의 학력은 20평형대 거주 가장은 대졸이 71.9%로 김해지역이 낮았고, 30평형대의 경우도 대졸이상이 86.4%로 나타나 김해지역이 낮았다.

조사대상 가구의 가족 수는 20평형과 30평형대 거주 가구 모두 4인인 경우가 69.3%와 6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평형대 거주 가구는 3인 이하인 경우가 19.8%였고, 30평형대 거주 가구는 5인 이상인 경우가 21.4%나 되었다<표 3>. 가족구성은 20평형대와 30평형대 모두 핵가족 형태가 대부분으로

<표 2> 조사대상 가구 가장의 특성

N=371

가장특성	구분	20평형대 f (%)	30평형대 f (%)	전체 f (%)
연령	25-29 세	4 (1.8)	2 (1.5)	6 (1.7)
	30-39 세	122 (56.2)	52 (38.5)	174 (49.4)
	40-49 세	82 (37.8)	71 (52.6)	153 (43.5)
	50세 이상	9 (4.1)	10 (7.4)	19 (5.4)
	계	217 (100.0)	135 (100.0)	352 (100.0)
	평균	39.0 세	40.9 세	39.7 세
학력	고졸이하	104 (50.0)	30 (23.1)	134 (39.6)
	대졸이상	104 (50.0)	100 (76.9)	204 (60.4)
	계	208 (100.0)	130 (100.0)	338 (100.0)
직업	판매서비스직	43 (21.0)	23 (17.7)	66 (19.7)
	전문기술직	17 (8.3)	6 (4.6)	23 (6.9)
	일반사무직	114 (55.6)	86 (66.2)	200 (59.7)
	행정관리직	16 (7.8)	7 (5.4)	23 (6.9)
	생산근로직	8 (3.9)	5 (3.8)	13 (3.9)
	기타(학생, 등)	7 (3.4)	3 (2.3)	11 (3.0)
	계	205 (100.0)	130 (100.0)	335 (100.0)
가장 직장위치	김해	92 (68.1)	67 (76.1)	159 (71.3)
	부산	29 (21.5)	12 (13.6)	41 (18.4)
	마산, 창원	9 (6.6)	7 (7.7)	16 (7.2)
	기타지역	5 (3.7)	2 (2.2)	7 (3.0)
	계	135 (100.0)	88 (100.0)	223 (100.0)

95.6%와 92.8%였다. 월평균 가계수입은 20평형대에 거주하는 가구는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5.0%,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5.5%로 평균 284만원이었고, 30평형대 거주 가구는 200-300만원이 37.6%, 300-400만원이 32.0%이며 평균 297만원으로 20평형대의 경우보다 많았다.

<표 3> 조사대상 가족의 특성

N=371

가족특성	구분	20평형대 f (%)	30평형대 f (%)	전체 f (%)
가족수	3인 이하	45 (19.8)	19 (13.6)	64 (17.3)
	4인	158 (69.3)	91 (65.0)	249 (67.8)
	5인 이상	25 (11.0)	30 (21.4)	55 (14.9)
	계	228 (100.0)	140 (100.0)	368 (100.0)
	평균	3.9 인	4.1 인	4.0 인
가족구성	핵가족	219 (95.6)	129 (92.8)	348 (94.6)
	확대가족	10 (4.3)	10 (7.2)	20 (5.4)
	계	229 (100.0)	139 (100.0)	368 (100.0)
월평균 가계수입	200만원미만	51 (25.5)	12 (9.6)	63 (19.4)
	200-300만원미만	90 (45.0)	47 (37.6)	137 (42.2)
	300-400만원미만	38 (19.0)	40 (32.0)	78 (24.0)
	400-500만원미만	8 (4.0)	18 (14.4)	26 (8.0)
	500만원이상	13 (6.5)	8 (6.4)	21 (6.5)
	계	200 (100.0)	125 (100.0)	325 (100.0)
	평균	284 만원	297 만원	291 만원

이상의 김해지역 거주자의 가족특성을 해운대 지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가족 수는 20평대는 4인인 경우가 59.8%, 3인 이하가 25.7%, 5인 이상이 14.5%로 전반적으로 김해지역의 경우와 유사한 성향을 보였으나 30평형대의 경우는 4인인 경우가 63.3%, 3인 이하인 경우가 27.5%, 5인 이상인 경우가 9.2%로 5인 이상인 경우가 3인 이하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김해지역의 경우와 다른 성향을 보였다. 월평균 수입은 20평대는 200-400만원 사이인 경우가 67.5%, 30평형대는 300-500만원 사

이가 63.5%로 김해지역의 경우가 적었다.

3.3. 조사대상 가구의 생활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생활특성으로는 주거특성과 주공간 사용특성을 알아보았다.

(1) 주거 특성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모두 현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79.7%와 86.4%로 자가율이 높은 편이었다(표4). 거주기간은 20평형대는 39.1%, 30평형대는 40.1%가 현재의 아파트에서 5년 이상 살고 있어 이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부터 이 곳에서 거주한 가구의 비율이 4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평형대와 30평형대 가구의 52.2%와 44.3%가 다른 시로부터 이 곳으로 이사온 가구여서 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이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 조사대상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 N=371

아파트 특성	구분	20평형대 f (%)	30평형대 f (%)	전체 f (%)
소유상태	자가	184 (79.7)	121 (86.4)	305 (82.2)
	임차	47 (20.3)	19 (13.6)	66 (17.8)
	계	231 (100.0)	140 (100.0)	371 (100.0)
거주기간	1-2년	62 (27.6)	47 (34.3)	109 (30.1)
	3-4년	46 (20.4)	31 (22.6)	77 (21.3)
	5-6년	88 (39.1)	55 (40.1)	143 (39.5)
	7년 이상	29 (12.9)	4 (2.9)	33 (9.1)
	계	225 (100.0)	137 (100.0)	362 (100.0)
이전 주거의 위치	김해시	107 (47.6)	77 (55.4)	184 (50.5)
	다른시	118 (52.4)	62 (44.6)	180 (49.5)
	계	225 (100.0)	139 (100.0)	364 (100.0)

(2) 주공간 사용특성

주거 내부의 공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표 5>, 20평형대와 30평형대 거주 주부의 82.3%와 74.3%가 거실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평형대 거주 주부의 경우는 주방/식당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4.3%가 되었다. 이처럼 많은 가구가 거실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 아파트 평면계획시 거실의 위치, 크기, 형태 등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20평형대 가구의 96.5%와 30평형대 가구의 98.5%가 컴퓨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 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2나 방3에 컴퓨터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71.7%, 86.6%이었으며 거실에 두는 경우도 19.4%와 15.7%나 되었다. 반면, 안방에 두는 경우는 8.7%밖에 되지 않아 향후 자녀수의 감소를 고려할 때 컴퓨터 사용을 위한 공부방, 서재, 또는 거실의 누크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방에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0평형대는 68.7%, 30평형대는 70.1%로 많았으며, 자녀 방인 방2의 경우는 각각 54.8%와 34.6%, 방3에서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각각 63.5%

와 37.2%나 되었다. 또한 침대를 사용하고 싶으나 방이 좁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20평형대는 방2와 방3이 31.9%와 50.4%이었고 30평형대의 경우도 각각 26.5%와 45.6%가 되어 침대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주공간의 사용특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 평면계획시 안방을 제외한 각 방에서의 침대 및 컴퓨터 사용을 고려하여 침실의 크기와 형태, 문과 창문의 위치 등을 계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침대사용 특성은 서울의 3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 중 일부침대의 보유율이 69.1%로 나타난 연구결과²⁾와 일치하지만, 안방에서의 온돌사용이 80%로 나타난 대구지역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³⁾와는 다른 결과로 지역에 따라 안방의 사용방식이 다를 것을 보여준다.

<표 5> 주거공간 사용특성 N=371

주거공간 사용특성	구분	20평형대 f (%)	30평형대 f (%)	전체 f (%)
가장 많은 시간 보내는 공간	안방	9 (3.9)	11 (7.9)	50 (5.4)
	방2	5 (2.2)	2 (1.4)	7 (1.9)
	방4	0 (.0)	1 (0.7)	1 (0.3)
	거실	190 (82.3)	104 (74.3)	294 (79.2)
	주방/식당	22 (9.5)	20 (14.3)	42 (11.3)
	기타	5 (2.2)	2 (1.4)	7 (1.9)
	계	231 (100.0)	140 (100.0)	371 (100.0)
컴퓨터 보유 댓수	없다	8 (3.5)	2 (1.5)	10 (2.8)
	1 대	201 (88.5)	106 (77.9)	307 (84.6)
	2 대	17 (7.5)	26 (19.1)	43 (11.8)
	3-4 대	1 (0.4)	2 (1.5)	3 (0.8)
	계	227 (100.0)	136 (100.0)	363 (100.0)
	평균	1.1 대	1.2 대	1.1대
컴퓨터 있는 방* (N=222)	안방	22 (9.9)	9 (6.7)	31 (8.7)
	방2	112 (50.5)	66 (49.3)	178 (50.0)
	방3	47 (21.2)	50 (37.3)	97 (27.2)
	방4	0 (.0)	9 (6.7)	9 (2.5)
	거실	43 (19.4)	21 (15.7)	64 (18.0)
	기타	7 (3.2)	2 (1.5)	9 (2.5)
침대 사용 방*	안방	149 (68.7)	96 (70.1)	245 (69.2)
	방2	119 (54.8)	87 (63.5)	206 (58.2)
	방3	75 (34.6)	51 (37.2)	126 (35.6)
	방4	0 (0.0)	6 (4.4)	6 (1.7)
방이 좁아 침대사용 못하는 방*	안방	25 (17.7)	7 (10.3)	32 (15.3)
	방2	45 (31.9)	18 (26.5)	63 (30.1)
	방3	71 (50.4)	31 (45.6)	102 (48.8)
	방4	0 (0.0)	12 (17.6)	12 (5.7)
	계	141 (100.0)	68 (100.0)	209 (100.0)

* 중복 응답한 경우임

이상을 종합하면, 김해시 신도시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4인 핵가족이 대부분으로 3,40대의 젊은 세대가 많았으며 가장은 대졸, 주부는 고졸의 학력수준을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고 아파트 규모가 클수록 가장과 주부의 연령과 학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수입은 200-400만원 정도로 가장이 일반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2)장상옥·신경주, 아파트 거주자의 기기양식과 그 만족도 및 전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 1998,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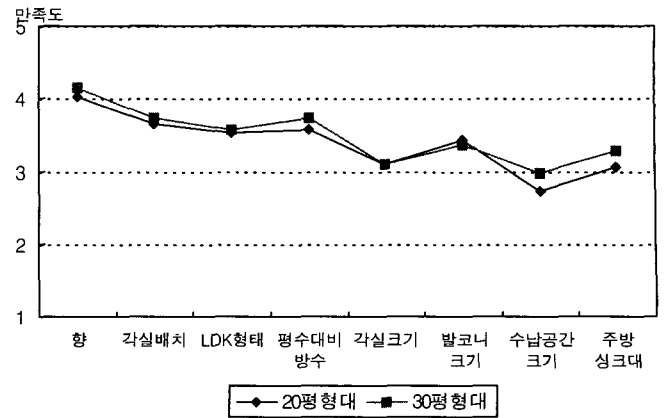
3)이선옥·박두용, 대도시 집합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규모규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8호, 1995, p.148

의 일부는 부산이나 마산, 창원 등 인접도시로 출퇴근하고 있어 김해시가 이들 지역의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 가구의 반 정도가 다른 시로부터 이주해 온 가구들로 이들이 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거실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컴퓨터를 1대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침대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만족정도

조사대상 아파트 대부분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전면과 후면 발코니 모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20평형대 아파트 중 3곳의 일부만이 2침실형이었고 대부분의 2,30평형대 아파트가 3침실형으로 안방과 거실이 전면에 위치하고 거실이 안방보다 약간 넓었다. 후면에는 중앙에 부엌이 있고 부엌 좌우에 방1과 방2가 위치하며 거실·식당·주방이 약간 어긋나게 하나의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는 평면유형이었다. 후면 발코니중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곳은 개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도설비가 되어 있었다<그림2, 그림5>.

이러한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그림 1>, 대부분의 거주자가 만족하고 있었다. 20평형대와 30평형대 거주 주부 모두 아파트의 향에 대한 만족정도가 4.0점과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각 실의 배치(각각 3.7점), 주택평수 대비 방의 개수(3.6점과 3.7점), 거실·식당·주방의 연결상태(3.5점과 3.6점)에 대한 만족정도도 높았다. 반면 수납공간의 크기에 대한 만족정도는 20평형대 2.7점, 30평형대 3.0점으로 모두 가장 낮았으며 각 실의 크기에 대해서도 모두 3.1점으로 낮았다. 즉 수납공간이 부족하고 작은 방들의 크기가 너무 협소하여 침대나 컴퓨터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각 실의 크기, 특히 작은 방의 크기에 대해 작다는 반응을 보인 대구지역 연구결과⁴⁾와 일치하며, 또한 창고 같은 수납공간의 면적이 작아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높게(31.7%) 나타난 연구결과⁵⁾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수납공간의 부족과 각 실의 크기협소문제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아닌 모든 지역의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만족정도

3.5.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요구

조사대상 지역 거주자의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의 개수, 각 실의 크기, 평면구조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1) 방의 개수에 대한 요구

조사대상 지역의 20평형대와 30평형대 거주 가구가 요구하는 방의 개수는 3개인 경우가 65.3%와 68.8%로 가장 많았다<표 6>. 이는 조사대상 가족 대부분의 가족수가 4인인 것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20평형대는 29.3%가 2개의 방을 원하였고 30평형대는 25.4%가 4개의 방을 원하여 평형대별로 방의 수를 차별화 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김해지역 아파트의 평면계획을 할 때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경우 방의 수가 3개인 평면유형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되, 20평형대에서는 2개인 경우를, 30평형대의 경우는 3개인 경우를 30%정도씩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각 방을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방의 수를 거주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 본다.

<표 6> 방의 개수에 대한 요구

적당한 방의 개수	20평형대 f (%)	30평형대 f (%)	전체 f (%)
2 개	66 (29.3)	8 (5.8)	74 (20.4)
3 개	147 (65.3)	95 (68.8)	242 (66.7)
4 개	12 (5.3)	35 (25.4)	47 (12.9)
계	226 (100.0)	138 (100.0)	364 (100.0)

(2) 각 실의 크기에 대한 요구

각 실의 크기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의 아파트에서 다른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면적을 늘렸으면 하는 공간과, 반대로 다른 공간의 크기를 늘리는 대신 줄였으면 하는 공간을 조사하였다<표 7>.

20평형대 거주 주부는 현재의 평면에서 거실을 늘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방2를 늘렸으면 하는 경우가 13.9%로 많았으며, 대신 줄여야 한다면 안방을 줄

4)김한수·김재익, 아파트 내외부공간 수요패턴의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1호, 1995, p.116

5)손세관·정숙희,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새로운 아파트 평면형식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1호, 1997, p.28

이하고자 하는 경우가 34.6%로 가장 많았다. 30평형대 거주 주부도 거실을 늘리고자 하는 요구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19.3%로 20평형대의 경우보다 낮았으며, 대신 방2와 방3를 늘리고자 하는 요구가 17.1%와 18.6%로 많았다. 또한 이들 공간을 늘리는 대신 안방을 줄이고자 하는 요구가 26.3%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상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거실로 나타난 앞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가구들이 거실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 거실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방은 부부침실 공간으로서의 기능만 하면 되므로 지금보다는 작아져도 된다고 한 것으로 보며, 주로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2와 방3의 경우는 침대와 컴퓨터 등을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므로 이를 늘리고자 하는 요구를 보인 것으로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20평형대의 경우는 거실과 안방의 크기조절을 위한 대안과 방2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30평형대의 경우는 거실, 방2, 방3과 안방의 크기조절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7> 각 실의 크기에 대한 요구

실의 종류	20평형대		30평형대	
	늘리고 싶은 공간 f (%)	줄이고 싶은 공간 f (%)	늘리고 싶은 공간 f (%)	줄이고 싶은 공간 f (%)
안방	7 (3.5)	74 (34.6)	6 (4.3)	35 (26.3)
방2	32 (13.9)	12 (5.6)	24 (17.1)	4 (3.0)
방3	14 (6.1)	18 (8.4)	26 (18.6)	4 (3.0)
방4	0 (.0)	0 (.0)	2 (1.4)	4 (3.0)
거실	87 (37.8)	6 (2.8)	27 (19.3)	15 (11.3)
주방	18 (7.8)	5 (2.3)	19 (13.6)	2 (1.5)
식당	3 (1.3)	3 (1.4)	1 (.7)	2 (1.5)
욕실	6 (2.6)	4 (1.9)	0 (.0)	8 (6.0)
현상태	20 (8.7)	52 (24.3)	14 (10.0)	45 (33.8)
기타	38 (16.5)	40 (18.7)	21 (15.1)	14 (10.5)
계	230 (100.0)	214 (100.0)	140 (100.0)	133 (100.0)

(3)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아파트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실과 현관의 구성방식, 거실과 주방·식당의 구성방식, 안방의 드레스룸 설치, 욕실구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표 8>.

① 거실과 현관의 구성방식에 대한 요구

거실과 현관의 구성방식에 대하여 20평형대 거주 가구는 현관과 거실이 개방되어 현관에 들어서면 거실이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49.1%로 거실은 현관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한 경우인 38.6%보다 많았다. 30평형대 거주 가구는 현관과 거실이 막혀져 있어 현관에서 거실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경우가 48.9%로 현관에 들어서면 거실이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인 41.7%보다 많아 아파트 규모에 따라 상반되는 요구를 보였다. 그러나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경우 현관과 거실이 개방되기를 요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의 차이가 10%정도이므로 거주자들이 입주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본다.

<표 8>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내용	20평형대	30평형대	전체	
	f (%)	f (%)	f (%)	
거실과 현관의 구성	현관에서 거실이 보이게	112 (49.1)	58 (41.7)	170 (46.3)
	현관에서 거실이 보이지 않게	88 (38.6)	68 (48.9)	156 (42.5)
	아무래도 상관없음	28 (12.3)	13 (9.4)	41 (11.2)
계	922 (922)	159 (140)	367 (100.0)	
거실과 주방·식당의 구성	거실에서 주방·식당 보이게	770 (33.6)	26 (18.6)	103 (27.9)
	거실에서 주방·식당 보이지 않게	79 (34.5)	51 (36.4)	130 (35.2)
	식당만 보이게	73 (31.9)	63 (45.0)	136 (36.9)
계	229 (228)	140 (139)	369 (100.0)	
안방 드레스룸 설치	필요	72 (31.4)	60 (43.2)	132 (35.9)
	불필요	43 (18.8)	21 (15.1)	64 (17.4)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상관없음	114 (49.8)	58 (41.7)	172 (46.7)
계	229 (100.0)	139 (100.0)	368 (100.0)	
욕실구성	욕조만 설치	28 (12.4)	11 (8.3)	39 (10.9)
	샤워부스만 설치	83 (36.9)	54 (40.6)	137 (38.3)
	욕조와 샤워부스 모두 설치	114 (50.7)	68 (51.1)	182 (50.8)
계	225 (100.0)	133 (100.0)	358 (100.0)	

② 거실과 주방·식당의 구성방식에 대한 요구

거실에서 주방과 식당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20평형대와 30평형대 거주 주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20평형대 거주 주부는 거실에서 주방과 식당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한 경우가 34.5%, 주방과 식당 모두 보여도 상관없다고 한 경우가 33.6%, 주방은 보이지 않고 식당은 보여도 괜찮다고 한 경우가 31.9%로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었다. 30평형대와 비교하여 거실에서 주방과 식당 모두가 보이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대신 식당만 보이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훨씬 적었다. 이는 현관과 거실의 경우처럼 좁은 집을 개방적으로 계획하여 넓어 보이게 하고자하는 바람에서 나온 결과로 본다.

반면 30평형대 거주 주부는 거실에서 주방은 보이지 않아야 하고 식당은 보여도 괜찮다고 한 경우가 45.0%, 주방과 식당 모두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한 경우가 36.4%로 역시 다양한 요구를 보였다. 그러나 20평형대에 비하여 거실에서 식당만 보이도록 하고자 하는 요구가 훨씬 많고 대신 주방과 식당 모두 보이게 하는 것은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안방의 드레스룸 설치에 대한 요구

다른 공간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안방에 드레스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20평형대와 30평형대 거주 주부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20평형대 거주 주부는 49.8%가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하여 다른 공간을 줄이면서까지 안방에 드레스룸을 설치하는 것은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평형대 거주 주부는 43.2%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5.1%만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여 30평형대의 경우 안방에 드레스룸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④ 욕실구성에 대한 요구

가족용 욕실에 욕조대신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20평형대와 30평형 거주 주부는 유사한 요구를 갖고 있었다. 욕조와 샤워부스 모두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20평형대와 30평형대가 각각 50.7%, 5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샤워부스만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경우가 각각 36.9%와 40.6%로, 욕조만 설치하기를 원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20평형대와 30평형대 아파트의 욕조가 설치된 욕실구성은 부적합하며 거주자 요구에 기초한 새로운 욕실구성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4. 지역특성 및 평면디자인 대안

4.1. 20평형대 거주 가구의 특성

김해시 내의동 신도시지역의 2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장과 주부는 30대가 많고 가장은 고졸과 대졸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반씩이었으며 주부는 고졸의 학력을 가진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다. 가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반 이상이었으며 직장이 김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산 등의 인접지역인 경우도 30%정도 되었다. 이들 가족은 4인의 핵가족 형태가 많았으며 월평균 수입은 70%가 300만원미만이었다.

이들의 주거특성을 보면 자가율이 높고 현재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도 비교적 긴 편이었으며 김해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가구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거실 중심생활을 하며 대부분이 컴퓨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컴퓨터는 대부분 자녀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2나 방3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침시 침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현재는 침실이 협소하여 침대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허용되면 침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면구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낮고 각 실의 크기에 대한 만족정도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납공간의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각 실의 크기 조절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요구는 어떤 일관된 경향을 보이기도는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었다. 침실 개수는 3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65.3%) 2개를 원하는 경우도 1/3정도(29.3%) 되었다. 각 실의 크기에 대해서는 거실(37.8%)과 방2(13.9%)를 늘리고 대신 안방을 줄이기(34.6%)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관에서 거실이 보이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반정도(49.1%) 되었으나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도 38.6%나 되었다. 또한 거실에서 주방과 식당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보이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34.5%)와 모두 보이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33.6%)가 비슷하였다. 안방에 드레스룸을 두는 것에 대하여도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한 경우가

반정도(49.8%) 되었으나 필요하다고 한 경우도 1/3정도(31.4%) 되었다. 또한 반 정도가(50.7%) 욕실에 욕조와 샤워부스 모두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욕조보다는 샤워부스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36.9%로 많았다.

4.2. 30평형대 거주 가구의 특성

3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장은 40대가 반 이상이었으며 주부는 30대가 많았다. 가장과 주부의 학력은 모두 대졸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많았다. 주부는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고, 가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장이 김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산 등의 인접지역인 경우도 30%정도 되었다. 이들 가족은 4인의 핵가족 형태가 많았으며 월평균 수입은 70%가 200-400만원 사이였다.

이들은 자가인 현재의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70%정도 되었으며 김해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가구가 45% 정도 되었다. 이들은 거실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고 취침시 침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부분이 컴퓨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컴퓨터는 방2나 방3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면구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수납공간과 각 실의 크기에 대해서는 만족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납공간의 확보와 각 실의 크기조절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요구는 20평형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관된 경향을 보이기도는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었다. 침실 개수는 3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68.8%) 4개를 원하는 경우도 25.4%가 되었다. 각 실의 크기에 대해서는 거실(19.3%)과 방2(17.1%), 방3(18.6%)를 늘리고자 하는 요구가 많았고 대신 안방을 줄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26.3%). 현관에서 거실이 보이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반정도(48.9%) 되었고 보이기를 원하는 경우도 41.7%나 되었다. 또한 거실에서 식당만 보였으면 하는 경우가 45.0%, 주방과 식당 모두가 보이지 않게 하였으면 하는 경우가 36.4%로 다양하였다. 안방에 드레스룸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와 없어도 상관없다고 한 경우가 43.2%와 41.7%로 비슷하였다. 욕실의 경우는 욕조와 샤워부스 모두 설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51.1%였고 샤워부스만 설치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40.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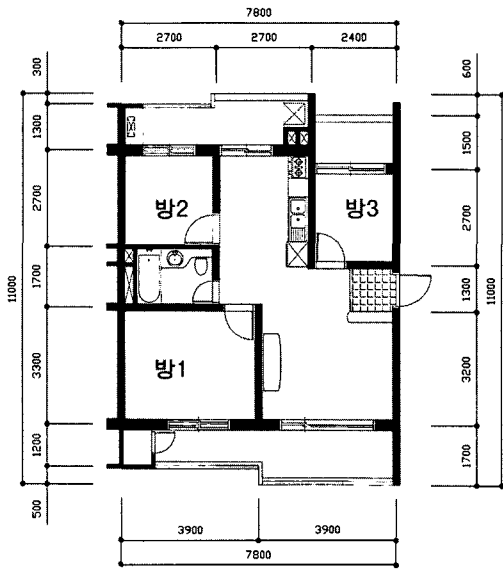
4.3. 아파트 평면디자인 대안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김해지역의 20평형대와 30평형대에 거주하는 주부들 모두 일치하는 반응을 보인 특성은 거의 없고 대신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보인 특성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김해지역의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아파트

평면대안은 획일적인 한 가지 평면만으로는 거주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20평형대와 30평형대에 거주하는 가구 모두 가구마다 원하는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단지 한 가지 평면 안이 아니라 몇 가지 안을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상의 거주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김해지역에 적합하리라 판단되는 20평형대와 30평형대의 아파트 평면디자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0평형대 평면디자인 대안

조사대상인 20평형대 평면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18평 아파트의 대표적인 평면을 기본 평면으로 채택하였다. 이 평면유형은 3침실형으로 20평형대의 경우 침실 2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29.3%) 본 연구에서는 3침실형의 평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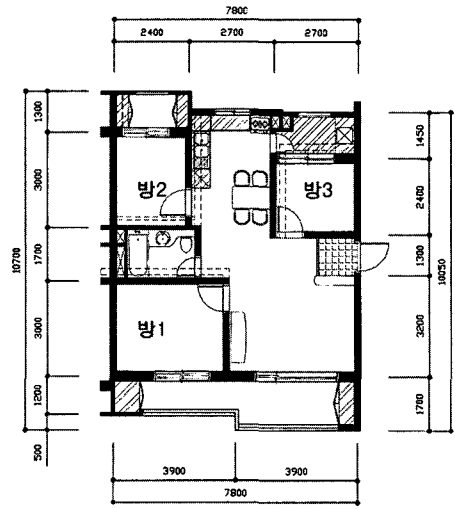


<그림 2> 20평형대 아파트 기본 평면

1단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만족정도 중 수납공간과 각 실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기본 평면의 전면과 후면 발코니 공간에 수납공간을 보강함으로써, 수납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 침실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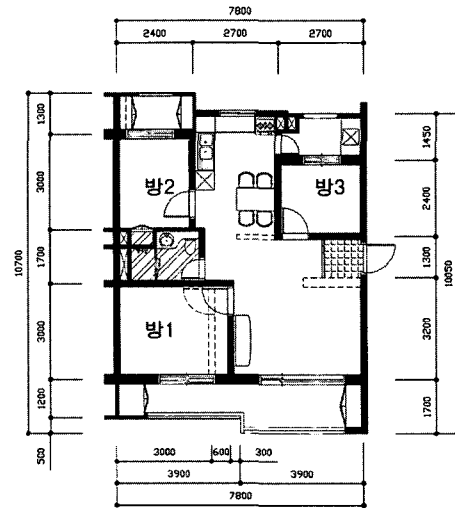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부엌의 작업대를 ㄱ 자형으로 바꾸어 주고 대신 부엌과 접해 있던 후면 발코니를 없애고 방3와 접해 있던 후면발코니를 부엌공간과 연결시켜 작업공간의 연장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3의 장변과 단변을 치수는 같으나 바꾸어 주었다. 또한 다른 방의 크기를 늘리는 대신 안방의 크기를 줄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방1(안방)의 단변의 길이를 3,300mm에서 3,000mm로 300mm 줄이고 출입문의 위치를 거실에서 바로 통하도록 위치를 변경하였

다. 또한 정방형이던 방2를 장변 3,000mm, 단변 2,400mm의 장방형으로 바꾸었으며, 그런 다음 방1 및 방2와 각각 접해 있는 전면과 후면 발코니 양쪽에 옷 등의 수납을 위한 수납공간을 두었다.



<그림 3> 20평형대 아파트 평면대안(1단계)

2단계 :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1단계에서 수정된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안방과 거실의 크기, 거실과 현관의 구성방식, 거실과 주방·식당의 구성방식, 욕실구성의 4가지 요인에 대한 대안을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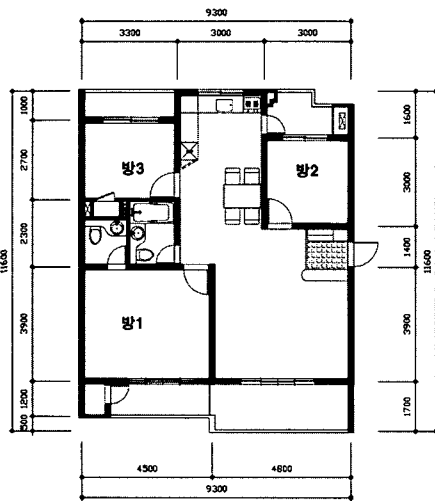
<그림 4> 20평형대 아파트 평면 최종대안

먼저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1단계에서 수정된 평면에서 거실의 길이를 600mm 늘리고 대신 안방의 길이를 그만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현관에서 거실이 바로 들여다보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관과 거실사이에 시선차단용 간막이를 둘 수 있게 하였고, 거실에서 주방과 식당이 보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거실과 식당 사이에도 시선차단용 간막이를 둘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욕실의 경우 욕조와 샤워부스 모두를 두기에는 너무 협소하므로 요구가 높게 나타난 샤워부스만을 두고 대신 방2의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안과 본래의 평면대로 욕조를 두는 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2) 30평형대 평면디자인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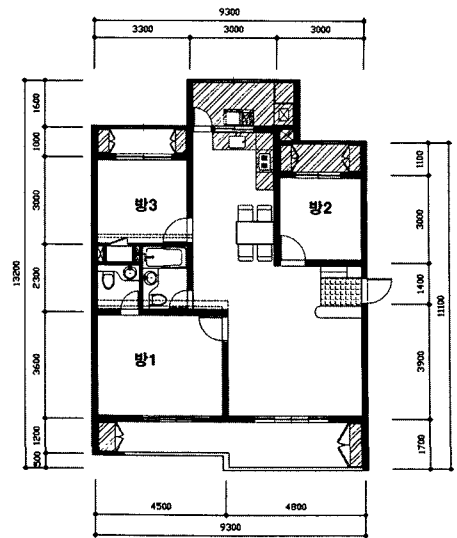
30평형대 조사대상 평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25.7평인 아파트의 대표적인 평면을 기본 평면으로 채택하였다. 이 평면유형은 3침실형으로 침실 4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25.4%) 본 연구에서는 3침실형의 평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5>.



<그림 5> 30평형대 아파트 기본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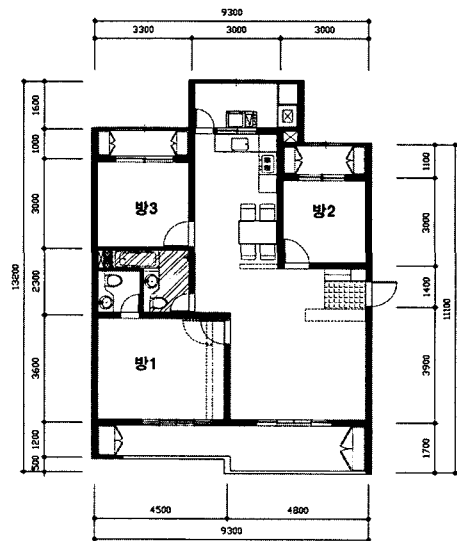
1단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만족정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기본 평면의 전면과 후면 발코니에 수납공간을 보강하였고, 각 실의 크기에 대한 요구결과를 근거로 방2와 방3의 크기를 확장하였다<그림 6>.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부엌의 작업대 설치 위치를 바꾸어 주면서 부엌 후면에 발코니를 추가하여 이 발코니를 부엌공간의 연장된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방2와 접해 있는 후면 발코니 양쪽 끝에 옷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두어 방2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1은 단변을 3,900mm에서 3,600mm로 300mm 줄이고 대신 방3의 단변을 2,700mm에서 3,000mm로 300mm 늘려 주고, 방3와 접한 후면 발코니의 양쪽 끝에 수납공간을 두어 방3의 협소함을 보완하였다. 또한 전면 발코니의 양쪽 끝에도 수납공간을 두어 방1에 수납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간도 확장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30평형대 아파트 평면대안(1단계)

2단계 : 아파트 평면구조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1단계에서 수정된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안방과 거실의 크기, 거실과 현관의 구성방식, 거실과 주방·식당의 구성방식, 욕실구성의 4가지 요인에 대한 대안을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평면대안을 개발하였다<그림 7>.



<그림 7> 30평형대 아파트 평면 최종대안

먼저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거실의 크기를 늘리고 대신 안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현관에서 거실이 바로 들여다보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현관과 거실사이에 시선차단용 간막이를 둘 수 있게 하였고, 거실에서 주방과 식당이 보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시선차단용 간막이를 둘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욕실의 경우 욕조와 샤워부스 모두를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 조사결과를 기초로 방3의 실내 불박이장을 없애고 욕조와 샤워부스 모두를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김해시 내외동 신도시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아파트 평면디자인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특성을 파악한 결과 김해지역은 부산 등 인접지역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작지만 하고 있었으며 김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가구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반적으로 아파트 규모 대비 연령대가 낮은 가정과 주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학력과 소득 수준도 낮은 편이었다. 이들 가구는 4인의 핵가족이 많았으며 3인 이하의 소가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들 가구는 거실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침대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구당 컴퓨터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의 아파트 평면디자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수납공간과 방의 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들이 요구하는 평면디자인에 대한 요구는 가구마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변형 내지는 선택형 아파트 평면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파트 평면대안<그림 4, 그림 7>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지역인 신도시 지구에 거주하는 가구는 반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이 지역의 특성형성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따라서 이들 가구들의 생활특성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던 가구들의 생활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차후의 신도시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지역 가구의 대부분이 4인 가족이었으므로 4인 가족에 적합한 3침실형 아파트를 전제로 평면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방의 개수를 조절 가능하게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가변형 평면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차후에 이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상희·안주영, 경남지역의 전면 3칸형 아파트의 공간이용행태 및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3권 4호, 2002
2. 김수암·박용환, 집합주택 단위평면 유형의 고정화 현상에 관한 연구(I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7호, 1992
3. 김한수·김재익, 아파트 내외부공간 수요패턴의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권 11호, 1995
4. 손세관·정숙희,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새로운 아파트 평면형식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1호, 1997
5. 심우갑·강상훈·조재모, 평면선택형 집합주택의 계획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4호, 2001
6. 오찬욱 외, 아파트 실내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호, 2003

7. 이선옥·박두용, 대도시 집합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규모규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8호, 1995
8. 장상욱·신경주,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그 만족도 및 전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 1998
9. 조성희·박수빈,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6호, 2000
10. Preiser, W.F.E., Rabinowitz, H.Z., and White, E.T., Post-Occupancy Evaluation, Van Nostrand Reinhold, 1988

<접수 : 2003. 8. 19>